

NEWS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시대과제’로 추진

코스트코-소상공인 상생발전
저리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전남도가 ㈜코스트코코리아의 순천 선월지구 투자 유치를 계기로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코리아와 순천 선월지구 내 신규입점을 위한 102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2029년 개점을 목표로 실시계획 변경, 건축심의, 상권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스트코의 선월 투자유치는 쇼핑, 관광, 청년 정주여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 등 지역경제 활력은 물론 전남·전북·경남권까지 아우르는 상권 중심지로 도약이 기대된다.

앞으로 전남도는 코스트코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500억원 규모의 저리 경영안정자금과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보증수수료(0.8% 고정) 부담도 경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순천을 비롯한 광양, 여수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연 최대 24만원 범위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적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디지털 광고판 등 스마트기기 설치 지원 확대와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판로개척과 매출증대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 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과 지역·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상공인과 윈-윈하도록 코스트코와 순천시, 순천시소상공인연합회 간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코스트코와 소상공인 상생협약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ulb@

본사인사

△김인수 수 국장대우 (편집국 사회부장)
△박정렬 부국장대우 (편집국 사회부)
△이승훈 부장 (편집국 경제부)
△임영진 총 차장 (편집국 사회부)
△이산하 총 차장 (편집국 경제부)
△정재경 총 차장대우 (편집국 문화체육부)
△송태영 총 차장대우 (편집국 경제부)
△윤웅성 총 기자 (편집국 사회부)
(2025년 10월 10일자)

전남도, 국가 주도형 추진…인프라 개선 등 병행
“무안공항 살릴 마지막 기회…국가가 책임져야”

전남도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형 추진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개항했지만, 불과 40km 거리에 광주공항이 존치되면서 항공수요가 분산되고 국내선 연계가 끊겨 ‘국제선만 있는 반쪽 공항’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민간공항 이전 논의는 군공

항 이전 문제에 막혀 10여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전남도는 이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을 제시했다. 2023년 5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답화문’을 통해 통합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12월엔 3조원 규모의 ‘무안 미래발전 비전’을 선포하며 주민 설득과 공론화에 나섰다.

도는 통합이전과 연계해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관문공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활주로 연장과 여객청사 확충, 정기노선 지원, 무비자 입국제 시행 등 인프라 개선을 병행하고,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공항정차역 개통과 연계한 공항 접근성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실 주관의 6자 협의체(TF) 구성을

지시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멈춰 있던 논의가 국가 주도형 협력체로 재편된 것이다.

여론의 변화도 뚜렷하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무안군민의 53.3%가 통합이전에 찬성한다고 응답,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신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무안군이 제시한 ‘광주 민간공항의 KTX 개통 전 선 이전’,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 마련’ 등 세 가지 조건이 6자 협의체에서 최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광주시와 긴

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중당이 호남에 진 빛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직접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이 무안국제공항을 살리고 전남·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마지막 황금 같은 기회”라며 “도민과 무안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공항 통합이전이 무안국제공항을 넘어 서남권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소통, 공론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원을 방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벼 깨씨무늬병 확산…“농업재해 인정” 정부 건의

도, 발생 면적 평년보다 2.3배 ↑…피해벼 전량 매입 요청
김민석 총리, 장흥군 안양면 일대 피해 농가 현장 살펴

전남도가 최근 벼 재배지에 급격히 번지고 있는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농업인 피해가 해마다 커지는 가운데, 제도권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남도의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깨씨무늬병은 고온다습한 기후와 양분 부족 환경에서 벼 잎과 줄기에 흑갈색 반점이 생기는 병해다. 등숙 불량을 유발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피해 농가에는 치명적이다.

9일 전남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발생 면적은 잠정 1만ha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8배, 평년보다 2.3배 많은 수치다. 급격한 확산세에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최근 기상 분석 자료와 현장 농업인 의견, 관련 연구 결과를 근거로 농업재해 인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시에 수확 전 재해 인정, 피해 벼 전량 매입을 건의했다.

현장 농민들도 정부 대책을 호소했다. 신정호 한국쌀전업농 전남도회장은 “올해는 적기에 방제를 했음에도 이상고온으로 피해가 확산됐다”며 “과거엔 감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코로나급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전남도를 방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황을 살폈다. 김 총리는 이날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대의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건의 사항도 들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농업재해 인정 등 피해 농가를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문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말 전국 최초로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조속히 인정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정부 역시 1일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재해 인정 여부와 피해 농가 지원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자영업자 “빚만 더 늘었다”

채무불이행도 4배 증가…금융 취약성 심화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의 수는 줄어든 반면 채무와 연체 액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수는 광주 8만5130명, 전남 13만 2535명이다. 통계청이 8월 기준으로 집계한 전체 자영업자 수(광주 13만 9000명, 전남 28만8000명)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대출 보유자 중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금융 채무 불이행자도 광주 4929명, 전남 6422명에 달한다. 광주·전남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 45만명, 올해 42만7000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금융 채무 불이행자와 그 금액은 늘고 있어 내수 부진과 코로나19 종식 이후 금리 상승 등으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 지역의 금융 채무 불이행 개인 사업자 수는 2020년 1313명에서 올해 7월 기준 4929명으로 3.75배 증가했

다. 전남 지역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563명에서 6422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 금액도 2020년 광주 18조7619억원, 전남 19조6894억원에서 2025년 7월 광주 24조7898억원, 전남 30조7626억원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금융 채무 불이행자들의 대출금액은 2020년 광주 1978억원, 전남 2205억원에서 2025년 7월 광주 8969억원, 전남 1조513억원 등 4.5배 이상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10명 중 한 명 이상이 저소득·저신용으로 연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자주로 분류되고, 이 중 절반은 채무의 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재 지역순환경제연구소소장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면 채무 상환 압박을 받게 되니 폐업을 못 한 채 빚만 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다”며 “광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실태 조사를 통한 대출 이자 조정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

▶1면 ‘광천동 재개발’서 계속

시는 조합·서구청과 도로 확장 등 교통 대책, 단지 내 시민아파트 보존 등에 합의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줬다. 광천동 재개발은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4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올해 안으로 철거를 시작해 내

년 하반기 착공에 돌입,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건설 불경기에 편승한 시공사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며 “세대수를 줄이고 건물 간격을 넓혀 단지가 확 트인 느낌을 주는 등 조화롭고 창조적인 건물 배치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발장 서겠습니다

휴인주식회사
HUIN Co., Ltd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입니다.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www.huin.kr